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천재 건축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도시 미학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Photo
News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것은 예술혼이다. 벨라스케스, 고야, 피카소, 달리, 미로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화가들을 필두로 세르반테스의 문학과 가우디의 건축까지 스페인의 색다른 감성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바르셀로나 도심 곳곳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가우디의 건축물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산업이 아닌 예술의 영역으로 건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전하는지를 지구상 어떤 곳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5, 9면>



현대건설 항만 기술력, 남태평양을 수놓다

동티모르 첫 진출, 24일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신생국 동티모르에 대규모 해양공사로 첫발을 내디디며, 항만 분야 전통 강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동티모르 석유광물자원부(MPMR, Ministry of Petroleum & Mineral Resources)가 발주한 7억1921만 달러(원화 약 7911억 원) 규모의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Suai Supply Base)'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티모르 남부 해안 수아이(Suai) 지역에 해상유전 개발을 위한 공급기지 및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현대건설은 3.3km에 달하는 해상 방파제 건설 및 준설작업을 포함한 해상공사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육상 공사를 각각 진행한다. 공사 현장은 수도 딜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138km 떨어져 있으며, 공사기간은 총 36개월이다.

현대건설은 197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등 해외 대형 항만공사를 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공사·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 원 매립공사, 스리랑카 콜롬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 신축공사 위치도

보 항만공사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국책사업을 담당 중에 있다. 이번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 신축공사의 현대건설 계약금액은 60%에 달하는 4억2300만 달러(약 4655억 원)로, 40여 년간 축적해 온 풍부한 항만공사 경험을 살려 해상공사 부문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유가 하락 및 전 세계적인 건설경기 불황에도 현대건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티모르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이번에 수주한 물

류보급기지는 총 40ha 규모로 동티모르 남부 해안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전략적 용도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으로 인구 110만 명 정도의 소규모 국가다. 최근 동티모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어 정유공장, LNG플랜트, 도로 및 공항 등 인프라 공사를 잇따라 발주할 예정이다.

Hyundai E&C enters South Pacific armed with technical prowess

Hyundai E&C has won its first deal from East Timor for a large-scale offshore project, establishing itself as a traditional strong player in the field of harbor construction once again.

Korea's primary builder received an order valued at approximately 791.1 billion won for the Suai Supply Base project from the country's Ministry of Petroleum & Mineral Resources (MPMR) on June 24. The deal was clinched by Hyundai Engineering. The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supply facilities and a seawall to be used for oil development off the southern coast of Suai. The builder will be in charge of building a 3.3-kilometer seawall and dredging works and Hyundai Engineering will lead the construction of ground-based facilities.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about 138 kilometers southwest of the capital Dili, and the construction is expected to take 36 months.

Hyundai E&C has conducted mega-siz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Currently, it is in charge of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regions of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The Suai Supply Base construction led by Hyundai E&C takes up 60 percent of the contract value, reaching approximately 465.5 billion won. The construction company plans to commit its 40 years of extensive experience in harbor construction to the offshore oil development sector.

NEWS

- '영종도 복합시설 신축공사' 수주
- 메르스 예방 비상대응체계 가동
-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그룹사 소식

현대·기아차, 신차품질조사 2년 연속 최상위권 동시 달성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내 신차품질조사에서 최상위권에 함께 오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피워치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5년 신차품질조사에서 21개 일반 브랜드 중 기아차가 1위, 현대차가 2위에 각각 오르며 2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2014년 현대차 1위, 기아차 3위).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 향상을 강조해 온 정몽구 회장의 '신글로벌 품질경영'의 결과"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국립서울현충원과 묘역 돌보기 자매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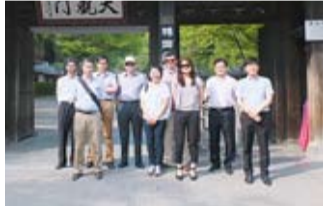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현충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과 묘역 돌보기 자매결연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한국전쟁 65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선근 현충원장과 현대엔지니어링 박찬우 상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현충원을 방문해 한국전쟁 전사자 650위가 안장된 묘역에 헌화하고, 비석 닦기와 잡초 제거 등의 정화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장·부서 소식

연구개발본부, 외국인 직원 대상 '글로벌 데이' 가져

연구개발본부가 지난 10일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글로벌 데이' 행사를 열었다.



연구개발본부 외 국인 직원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에서 농악놀이, 줄타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한 후 전통차를 마시며 친목을 도모했다.

연구개발본부는 지난 3월부터 '글로벌 데이'를 분기별로 시행해 외국인 직원들 간에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외국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 전자결재서류·사내 복지 정보 영문화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유일호 국토부장관 방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중동 민관합동 건설수주 위원단이 지난 1일 우리 회사의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들 총 29명의 방문단은 현장 내 홍보관을 관람하고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은 쿠웨이트시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해 수비아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초대형 교량을 포함해 2개의 인공섬을 조성하는 공사다. 완공은 2018년 11월.

'영종도 복합시설 신축공사' 수주 1337억원 규모 ... 2017년 8월 준공 예정

영종도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가 지난 5월 1336억 7000만원(VAT 별도) 규모의 '영종도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 수주에 이은 성과다.

'영종도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연면적 9만 4916.91㎡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 418실 ▶레지던스 호텔 349실 ▶오피스텔 344실 등 총 1111실과 판매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디자인은 투시성을 높인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건축물의 위압감을 완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층부의 개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현장사무소가 개설돼 사전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은 2017년 8월 예정.

우리 회사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준공을 달성하고, 발로 뛰는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격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준공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영종도 내 호텔·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향후 공사 발주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우리 회사가 수주한 '영종도 복합시설' 투시도.

Our company wins an order for Yeongjongdo Multipurpose Facility

Our company obtained a 133.67-billion-won deal on June 5 to construct a multipurpose facility in Yeongjongdo Island as the island development plan is on the way in earnest. In May, our company had received an order for a project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passenger terminal and build other facilitie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Yeongjongdo multipurpose facility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business hotel with

418 rooms, a residence hotel with 349 rooms, a studio apartment building with 344 rooms and commercial shops in the 94,916.91-square-meter area. With respect to designing, the curtain wall method with a higher degree of transparency is

applied to provide a soft touch to the overwhelming architecture. The openness of the ground level is increased to ensure it can play a role of a community space.

The construction is slated to be completed in August 2017.

메르스 예방 비상대응체계 가동

우리 회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회사는 본사 전 부서와 국

내외 전 현장에 메르스 예방 수칙과 대응 지침을 전달하고 임직원은 물론 가족,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의식)자 발생과 관련한 일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사의 경우, 1층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직원 및 방문자의 체온을 24시간 체크하고 있으며 계동 사옥 본·별관에 대한 방역 작업도 세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국내외 현장은 ▶마스크 지급 ▶손세정제 비치 ▶출근 시 체온 측정 ▶방역작업 등을 진행하며 메르스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중동 현장과 지사에 메르스 치료가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한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전 임직원에게는 중동 출장과 현장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소개하며 "가족을 포함해 감염 의심 시 HSE혁신실 또는 총무실 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계동 사옥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해외 공사 EoT 사례 발표회 열어

우리 회사가 지난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공사 공기 지연 대응 강화를 위한 'EoT(Extension of Time) 사례 발표회'를 했다.

이번 발표회는 해외 현장에서 공기 지연 발생 시 지체보상금과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고, 공기 연장 클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공정혁신실

김민아 과장이 우리 회사의 해외 공기 연장 클레임 추진 현황과 함께 공기 연장 관련 공정혁신실의 지원 업무를 소개했다.

이어 싱가포르지사 김영재 부장대우가 공기 연장 추진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주대 건축학부 김경래 교수가 '선제적 공기 지연 관리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전략'을 주제로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본사에서 열린 해외 공사 EoT 사례 발표회.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우리 회사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우리 회사는 이날 열린 삼호가든맨션3차 조합원 총회에서 대립산업과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기존 12층 6개 동 424세대를 지하 3층~지상 34층 6개 동 전용면적 42~132㎡의 총 835세대로 재건축한다. 예상 공사비는 1963억원이며 공기는 착공 후 30개월이다. 우리 회사는 이 단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할 계획이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7월 분양예정

우리 회사가 다음 달 대우건설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안산시 아파트 중 최고층인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에 아파트 1600세대와 오피스텔 440실로 조성된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석수골역이 2018년 단지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고,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와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PHOTO NEWS

싱가포르 사우스비치 호텔 준공

우리 회사가 지난 19일 싱가포르 비치로드에 654실을 갖춘 사우스비치 호텔(South Beach Hotel)을 준공했다. 이는 지상 34층과 45층 최고급 복합빌딩 2개 동을 짓는 6억4550만 미국 달러 규모의 사우스비치 신축공사 프로젝트 중 호텔 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지난 2월에는 34층 오피스동을 완공한 바 있다. 우리 회사는 향후 레지던스와 문화재 건물 보수·복원 공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사우스비치 복합빌딩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Knockout with a silver lining

Young national team's Cup breakthrough ends vs. powerhouse France

June 23

The Taegeuk Ladies' historic run at the 2015 FIFA Women's World Cup ended on Monday (Korean time) with a 3-0 loss to world No. 3 France in the Round of 16.

At Olympic Stadium in Montreal, Korea couldn't match the speed and technique of the one of tournament favorites, as Marie Laure Delie scored twice and Elodie Thomis once to end Korea's first ever appearance in the knockout stage.

France, the host nation of the next women's World Cup, will face No. 1 Germany on Friday for a spot in the semifinals.

France, a semifinalist in the last World Cup and Summer Olympics, has more than 83,000 registered female footballers, while Korea has fewer than 2,000.

Within 10 minutes of the kickoff, France scored two goals in a similar manner. In the fourth minute, left back Laure Boulleau penetrated Korea's right side after making a one-two pass with Camille Abily and delivered a short cross to Delie, who



Korean women's national team players salute their supporters after finishing the Round of 16 of the FIFA Women's World Cup at Olympic Stadium in Montreal on Monday.

tapped it easily into the net with her left foot to put France on the board.

Just four minutes later, it was Thomis who had a one-two pass with Eugenie Le Sommer and then found the net with her left foot.

Korea, which had four goals in its past two matches against Costa Rica and Spain, tried to challenge

the French defense with striker Park Eun-sun up front and wingers Kang Yu-mi and Jeon Ga-eul moving on the flanks.

However with Ji So-yun, Korea's all-time leading scorer with 39 goals sitting on the bench due to an injury, the team struggled to produce scoring opportunities in the first half.

Making matters worse, goalkeeper Kim Jung-mi had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fter taking an elbow by teammate Park in the 17th minute while leaping for a ball lobbed into the box.

With a bandage on her cheek, the 30-year-old Kim, who faced France in the 2003 World Cup, took another collision just before the end of the first half, but never left the field.

However, she couldn't stop another goal from France, which was scored three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when Delie found the net again after Le Sommer brought the ball to the end line and passed it back to the 27-year-old striker.

Korea tried to fight back, replacing Park with Yoo Young-a and defensive midfielder Kwon Ha-nul with Lee So-dam, but it wasn't enough.

In 2003, Korea ended the World Cup with three losses, scoring only one goal while allowing 11. But 12 years later, the team collected its first Cup victory against Spain and reached the knockout stage with record of one win, one loss and one draw.

희망 속의 패배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강호 프랑스 돌파 실패

2015년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경기를 펼친 태극 여전사들의 도전이 16강전에서 프랑스에 0-3으로 완패하며 지난 월요일(한국시간) 끝났다.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한국팀은 스피드와 기술 면에서 전통의 강호 프랑스에 적수가 되지 못하고, 마리 로르 델리에가 두 골, 엘로디 토미가 한 골을 허용해 월드컵 최초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도전에 막을 내렸다.

다음 여자 월드컵 개최국인 프랑스는 세계랭킹 1위인 독일과 26일 금요일 8강에서 맞붙게 된다.

지난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준결승에 진출한 바 있는 프랑스는 등록된 여

자 축구 선수가 8만3000여 명인 반면 한국은 2000명이 채 안 된다.

프랑스는 킥오프 10분 만에 비슷한 방식으로 두 골을 얻어냈다. 전반 4분 카밀 아빌리와 로르 블로의 2대1 패스로 짧게 넘어온 볼을 마리 로르 델리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한국의 그물을 흔들었다.

4분 뒤에는 엘로디 토미가 유지니 르 소머와의 2대1 패스를 통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는 데 성공했다.

코스타리카, 스페인과의 지난 두 차례 경기에서 네 골을 넣은 한국팀은 박은선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고 강유미와 전가율이 양쪽 날개를 맡아 프랑스와 맞섰다.

그러나 A매치에서 39골을 기록한 대표선수 지소연이 부상으로 벤치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전반 득점 찬스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실상가상으로 골키퍼 김정민은 전반 17분 공중볼 경합 중 박은선의 팔꿈치에 맞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2003년 월드컵에서도 프랑스를 상대한 바 있는 30세 만년니 김정민은 전반 후반 무렵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음에도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끝까지 필드를 지켰다.

그럼에도 후반 3분, 르 소머가 측면을 돌파해 패스한 공을 27세의 스트라이커 마리 로르 델리가 득점으로 연

결한 프랑스의 추가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박은선을 유영아로, 수비형 미드필더 권하늘을 이소담으로 교체하며 반격을 모색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2003년 월드컵에서 11골을 내주고 단 한 골을 넣으며 3패로 예선 탈락한 한국팀은 그로부터 12년 후 스페인을 상대로 월드컵 첫 승리를 거머쥐었고 1승 1무1패로 토너먼트에 올랐다.

▼ Key expressions

- silver lining: 밝은 희망(전망)
- knockout stage: 토너먼트 단계
- lob: (공이 상대 선수 뒤로 넘어가도록 높이) 차다(차다)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urpass \$700 billion

June 22

Korea's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passed \$700 billion,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Asia's fourth-largest economy could soon rank fifth worldwide in overseas construction.

Despite disadvantageous condi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broad, like falling global oil prices and political unrest in the Middle East, overseas construction is considered a cash cow for Korea.

One of the main reasons Korean builders have been so successful



abroad is because foreign investors recognize their diligence.

The first overseas project won by Korean builders was an expressway project in Thailand in 1965, inked by Hyundai Group founder Chung Ju-yung, worth \$5.4 million.

Although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lost about \$3 million on the project, it became

an opportunity for other Korean builders to bid for overseas jobs.

In 1976, the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won an unprecedentedly large project, to build an industrial port in Jubail, Saudi Arabia, worth \$940 million - about 25 percent of Korea's state budget at the time.

Still, industry observers pointed

out there's much Korean builders must overcome. They should first challenge other emerging markets, such as Asia or Africa, not just focusing on projects in the Middle East, analysts say.

Diversifying their business is also necessary, analysts say, shifting the current focus from construction-only contracts to design and financing.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Opinion Question

Q What is your favorite novel?

SAMPLE ANSWER

There are lots of books in book stores, so I can pick any book to read. Although, I have my favorite novel which I read several times a month repeatedly. It is 'The Great Gatsby'.

When I was an university student, I took a class about 'The Great Gatsby'.

The story was impressive. The story was happend in the past time of America, but they had much similarity with nowadays. I could understand a feeling of a character in the novel.

Until now, I read the book again and again. Always I feel same as the characters and it always makes me excited. So, my favorite novel is 'The Great Gatsby'.

Personal Question

Q Where would you like to spend your vacation?

SAMPLE ANSWER

The summer is coming and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If I have some vacation right now, I want to spend my vacation in a specific place.

I want to spend my vacation in a hotel room alone. People might think that I will pick a beach or swimming pool.

However, I just want to have a break time. I want to wake up late in a hotel room. I want to go to cafeteria in the hotel and have a cup of coffee with an interesting book.

Also I will have lunch and dinner in a restaurant in the hotel and take a lazy break time in my room.

That is what I want to do and where I want to go to spend my vacation.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CULTURE

Face masks that both protect and stand out

June 23 : The country has been engulfed by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leaving the public with varying levels of apprehension.

Fashion-sensitive people are refusing to choose between looking stylish and being safe. The sun is shining and it's the best season to show off a sense of style but a careful head-to-toe look is destroyed by a big white disposable mask.

Some people are taking the MERS scare as an opportunity to create a fashion item that's entirely new.

High fashion has seized on infectious diseases like MERS as an inspiration for fashion.



REPORT

우리 회사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 위례 힐스테이트를 선보인다. 100% 분양을 기록한 만큼 현장 전 직원은 힐스테이트만의 프리미엄을 입주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현장 최고 (83) 위례 힐스테이트(DW65) 현장

강남과 하나 되는 신도시 생활을 누리다



위례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위례 힐스테이트 현장 전경. 현재 공정을 87%를 기록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중심

위례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는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 안정과 서민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경기도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A2-12블록에 위치한 위례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14층 14개 동 규모에 총 62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우리 현장은 위례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송파대로, 현릉로 등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때문에 강남 생활권이 가능하며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에 8호선 우남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위례신도시에서 흔히 않은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가든파이프, 가락농수산물시장 등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쇼핑 환경도 갖추고 있다.

우리 현장의 현재 공정률은 87%로, 타일·도장·도배를 비롯한 세대별 마감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준공은 오는 11월 말 예정. 100% 분양을 달성한 만큼 현장 전 직원은 입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을 배려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단지

우리 현장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뛰어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절반을 녹지로 설계해 전체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였고, 전 세대를 남측향으로 배치했다.

단지 외관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주안점을 뒀다. 프랑스 국립 Arts-Decos 대학의 장 필립 랑클로 교수가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컬러를 사용해 컬러세라피 단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외관과 단지 내 녹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예정이다.

입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쿨버스 정류소를 마련하고, 사람과 차의 동선을 분리해 차랑 없는 지상 공간을 제공한다. 무인경비, 차량 출입 통제, 디지

털 도어록, 비상콜버튼 등 다양한 안전시스템도 적용됐다.

특히 우리 현장은 힐스테이트의 혁신 설계인 'Wise Grid Haus'를 활용해 라이프 스타일별 공간을 제공한다. ▶3세대가 거주하는 패밀리라이프형 ▶중년 부부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라이프형 ▶자녀 교육을 위한 에듀라이프형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평형을 선택할 수 있어 입주민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케 했다.

현장은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욕실바닥에 배수 배관을 설치한 층상배관시스템과 강화된 층간소음완화재를 적용해 입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품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현장 전 직원은 현장의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리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VE(Value



1 위례 힐스테이트 조감도. 2 지난 4월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성공 준공을 다짐하는 현장 직원들. 현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ngineering)를 통해 지하 주차장의 기둥과 보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로 제작·시공해 공기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골조공사에는 강도 높은 철근을 사용해 소모되는 철근량을 줄여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그뿐 아니라 3개 가구를 실물 모형(Mock-up)으로 제작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다. 마감 공정까지 실물모형 작업을 진행해 시공 하자가 발생하지, 전기·설비 간 간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실제 세대별 공사 시 적용시켜 마감의 품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우리 현장 전 직원은 최상의 품질로 입주민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사에 전념하고 있다. 글=홍석영 기사



MINI Interview 한홍석 현장소장

“최고 품질의 힐스테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위례 힐스테이트 현장은 준공까지 5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례 힐스테이트는 강남 생활권인 위례신도시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에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죠. 분양이 100% 완료됐기 때문에 그만큼 입주민의 기대 또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최고 품질의 힐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는데,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전 직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위례신도시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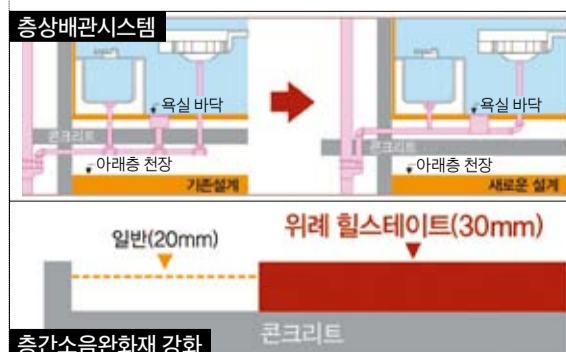
생활 소음까지 잡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중 층상배관시스템 첫 도입

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 가능성도 크다. 위층에서 뛰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못지않게 위층 욕실의 물 내려가는 소음은 입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다. 이에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입주민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제

공하기 위해 특화 설계의 하나로 층상배관시스템을 고안했다. 힐스테이트 단지 중 층상배관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곳이 바로 위례 힐스테이트 현장이다. 이 시스템은 위층 욕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과하는 기존의 설계와 달리 배관을 슬라브 상부에 두도록 설계됐다. 위층에서 들리는 배수 소음을 줄여주고 유지·보수 또한 직접 자신의 가구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에서 처음 시도하는 공법인 만큼 거푸집 설치에서부터 전기·설비 기구 설치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원들의 협력을 통해 꼼꼼하게 시공할 수 있었고, 현재 순조롭게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mm의 층간소음완화재 대신 30mm의 완화재를 선택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했다.



MARKET

GRUPO ACS는 인수합병(M&A)과 함께 성장했다. 1983년 Construcciones Padros,S.A.를 시작으로 1986년 40년의 역사를 지닌 OCISA, 1988년 전기 전문 기업 SEMI 등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사업 영역 및 진출 지역을 확대했다. 글=장현승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사진=GRUPO ACS 제공



건설칼럼

글로벌 톱 건설사 스페인 GRUPO ACS

인수합병으로 위기 극복

스페인 건설기업들은 2010년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자국 부동산 시장 하락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을 겪었다. GRUPO ACS를 비롯한 스페인 6대 건설사는 모두 자국 시장의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다. 특히 과거 식민지였던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했다.

GRUPO ACS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무리할 만큼 적극적인 해외 기업 인수를 추진했다. 2002년 자국 시장에서 자사보다 매출 규모가 2배 큰 Dragados를 인수하면서 스페인 내 최대 건설사가 된 GRUPO ACS는 송배전, 전력, 도시환경시설관리 분야 회사를 인수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2011년에는 세계 1위 건설사인 Hochtief를 인수(지분 50% 남짓 취득)하면서 독보적인 글로벌 톱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기업의 M&A를 통해 자국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위기를 상쇄하는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수합병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내 건설사에 주는 시사점

진출 지역 다변화와 더불어 시공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며 성장한 GRUPO ACS는 현재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부문 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GRUPO ACS의 경영전략 특성은 ▶리딩 기업 인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자회사에 자율권 부여 및 운영 효율화 추구 ▶사업 다각화 전략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및 O&M(Operation & Maintenance) 사업 확장 ▶자국 시장 위축에 대비한 이미징 시장 진출 전략 모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GRUPO ACS도 어느 선진 건설기업과 마찬가지로 시공 부문과 민자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Iridium은 인프라와 공공시설 민간 합작투자(PPP)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사업 분야

GRUPO ACS의 사업 분야는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는 건설(Construction), 산업서비스(Industrial Services), 환경(Environment)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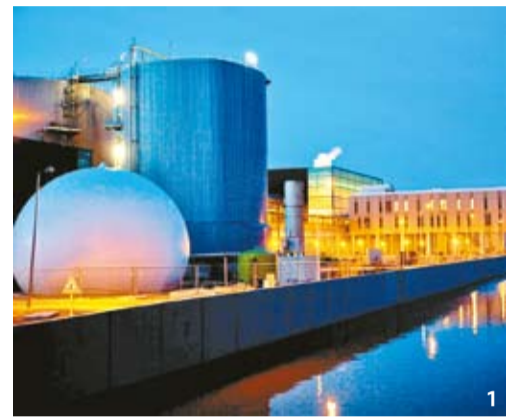
● 건설(Construction)

GRUPO ACS의 대표 건설사에는 크게 Dragados, Hochtief, Iridium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는 토목, 건축, 채광 등이다. 위 3개 건설사의 매출액은 연간 258억2000만 유로로, 전체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7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억2300만 유로(0.9%)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 매출 실적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45%), 아메리카 지역(40%), 기타 유럽 지역(10%), 스페인(5%) 순이다. 2014년 기준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51억3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GRUPO ACS 본사 전경.



1 프랑스 마르세유 폐기물 처리 공장.
2 캐나다 퀘벡과 몬트리올을 잇는 고속도로.

● 산업서비스(Industrial Services)

산업서비스 부문의 주요 사업 분야에는 네트워크, 특화상품, 제어계통 등이 있다. 해당 부문의 매출액은 67억5000만 유로며, 영업이익은 4억2000만 유로(6.2%)를 기록하고 있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아메리카 지역(46%), 스페인(37%), 기타 유럽 지역/아시아-태평양 지역(7%), 아프리카 지역(3%) 순이다. 특히 네트워크 부문의 경우 전력, 가스, 수자원 부문의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8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환경(Environment)

환경 부문 대표 기업으로는 Urbaser, Cilece가 있으며, 이들 기업의 주요 사업은 폐기물 처리, 도시환경 관리, 물류, 시설 관리 등이다. 해당 부문의 매출액은 23억3800만 유로, 영업이익은 7200만 유로(3.1%) 정도다. 특히 2014년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20.4% 증가한 101억64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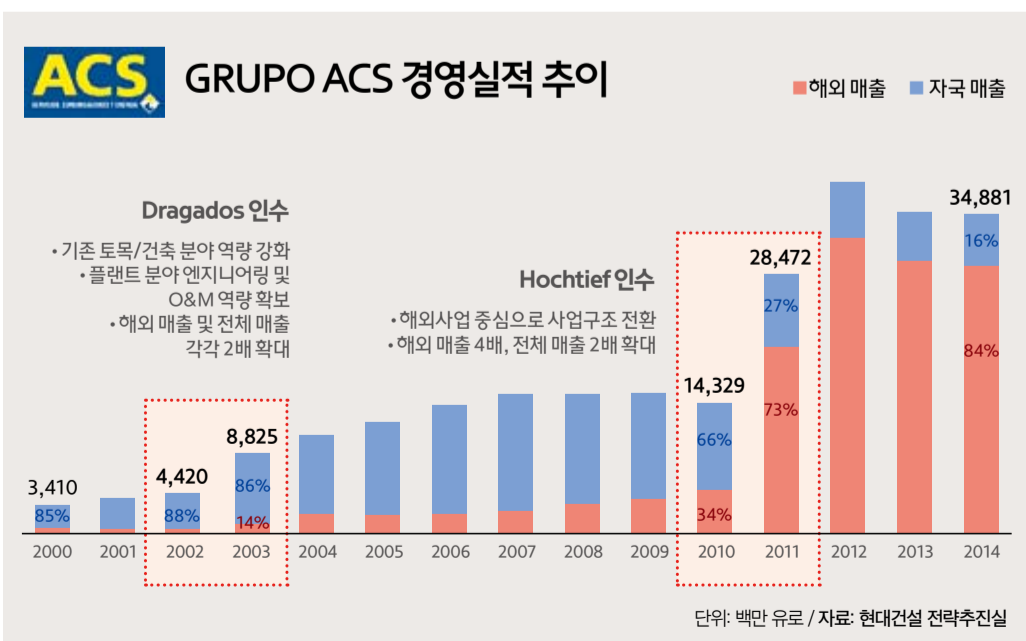
● 기술인력 보유 현황

GRUPO ACS의 해외시장 다각화와 공종 다변화 전략은 기술인력 채용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4년 기준 고용 인원은 21만345명, 그중 스페인인이 11만 267명, 외국인이 10만78명이었다. GRUPO ACS의 경우 상품보다는 시장 다각화 및 우선적 선점을 큰 전략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외 기술인력 보유가 크나큰 자산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의 키포인트, 밸류체인

GRUPO ACS의 성장 배경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으로 건설사업의 기획-자금조달-설계-시공-시운전 및 운영사업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Value Chain)을 꼽을 수 있겠다. 특히 글로벌 건설시장의 침체기로 인한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기업을 M&A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스스로 개척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해외 수주 실적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Dragados 인수

- 기존 토목/건축 분야 역량 강화
- 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 및 O&M 역량 확보
- 해외 매출 및 전체 매출 각각 2배 확대

Hochtief 인수

- 해외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
- 해외 매출 4배, 전체 매출 2배 확대

FOCUS



Type A

떠나라!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아웃도어파

명랑하고 열정적인 당신,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아웃도어파'는 팀 내 아이디어 뱅크로, 복잡한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구속 받는 것을 싫어하는 당신에게 탁 트인 대자연은 그 자체로 힐링을 선사한다.

천가지 매력을 품은 섬, 하와이

하와이를 신혼여행지로만 알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하와이는 총 여덟 개 섬으로 이뤄져 있지만, 사람이 발 디딜 수 있는 곳은 여섯 개뿐. 최고의 해변과 소름끼리는 가진 '오아후', 옛 하와이 왕국의 유산과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마우이', 지 금도 활동 중인 화산이 있는 '하와이 아일랜드', 원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카우아이', 소음을 차단한 완벽한 휴양의 섬 '라나이', 가장 하와이다운 섬이라는 별칭을 가진 '몰로카이' 등 제각각 품은 절경을 둘러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중에서도 하와이 아일랜드에 위치한 '하와이 화산국립공원(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을 추천한다. 분화구에서 흘러나오는 가스도 검은

용암으로 덮인 대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풍광을 선사한다. 렌터카로 순환도로 '크레이터 림 드라이브(Crater Rim Drive)'를 따라가며 관람하는 것이 요령이다. **Tip.** 하와이는 연중 여행하기 좋다. 비행시간은 서울에서 7시간30분가량. www.gohawaii.com/kr

자연이 살아 숨쉬는 캐나다 로키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로키산맥 중 캐나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컬어 캐나다 로키라고 부른다. 캐나다 로키에만 국립공원 4개와 주립공원 3개가 있다. 가는 곳마다 해발 3000m급의 높은 봉우리와 에메랄드빛 호수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트레킹 도중에 야생동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야생 곰도 종종 출몰하니 놀라지 말 것. 특히 로키산맥의 관문이자 자연에 둘러싸인 도시 캘거리(Calgary)는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다. 낮에는 로키산맥에서 야생의 매력을 만끽하고, 밤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식도락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빙하로 뒤덮인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야생 동물이 볼거리인 밴프(Banff) 국립공원도 꼭 가

봐 할 곳. 밴프 국립공원 내 트레킹 코스는 무려 1800km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여행의 절정은 노천 유황온천, 고산에 둘러싸인 곳에서 즐기는 노천욕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아름다움에 반해 곡을 쓴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도 놓치지 말자. **Tip.** 6-8월이 여행 성수기. 때를 잘 맞춰 가면 각종 페스티벌도 즐길 수 있다. travelalberta.kr

*more Place 스킨스쿠버의 천국, 필리핀 보홀 / 웅장한 대자연의 감동, 노르웨이 / 자연이 만든 아늑한 초현실적 풍경, 볼리비아 유유니 스코사막



하와이의 에메랄드빛 바다

Type B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유유자적 나그네

심신이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휴식.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다.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여름휴가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다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유달리 귀찮아하기 때문에 멍하니 있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주의할 것.

도심에서 즐기는 힐링, 호텔 패키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완전한 휴식을 원한다면 호텔 패키지가 정답이다. 폭신한 이불을 돌돌 말고 누워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잠을 청하거나, 보고 싶었던 미드를 지칠 때까지 보는 것도 좋겠다. 일 년 중 나만을 위한

호사를 완벽하게 누리 보자. 배를 채우러 멀리 나갈 필요도 없다. 광합성을 원한다면 왜 한 권을 들고 호텔 수영장으로 몸을 옮겨보자. 요즘은 각 호텔마다 다양한 콘셉트의 여행 패키지가 합리적으로 나와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서머 브리즈 패키지'(17만8200원), 그랜드 힐튼 서울 '해피 아일랜드 피치1'(17만9000원), 웨스턴 조션 '블루 인 더 시티'(25만원), 롯데호텔 '엑스 패키지'(24만원), 신라호텔 '엘리 서머 에디션'(32만원) 등이 있다. **Tip.** 아이를 위한 특별혜택이 있는 호텔도 있고,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키즈룸에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메이필드 호텔에서 키즈클럽, 동물 친구 만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작은 섬

몇 달 전부터 계획 세우는 것은 체질상 못하는 '유유자적 나그네' 타입에게 최고의 여행지는 바로 국내 섬. 제주도처럼 크고 알려진 섬이 아니라 보길도·위도·임피도 등 소규모 섬은 성수기 휴가지에 비해 붐비지 않고 갑자기 떠나도 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요즘은 펜션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민박도 나쁘지 않다. 서해권 코스는 '대야도'를 추천한다. 웅진군 자월면에 딸린 대야도는 인선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40분이면 도착한다. 면적 2.57km, 해안선 길이 18km인 대야도는 جنگ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에 딱 좋다. 단단한 모래로 이뤄진 풀밭에서는 맛조개, 고동, 골뱅이, 바지락, 비단조개 등을 잡거나 일광욕,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남해권으로 여수 '금오도'를 추천한다. 최근 금오도를 찾는 외국인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바람길, 현재 바람길은 5개 코스, 총 18.5km가 개통됐다. **Tip.** 섬 정복은 한국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island.haewoon.co.kr)에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more Place 치앙마이 '호시바나 빌리지' / 4000여 개의 섬을 품은 라오스 '시판' / 왕족들이 쉬었던 가파르티안섬, 태국 크라비



신라호텔 마의 수영장

웅진군 대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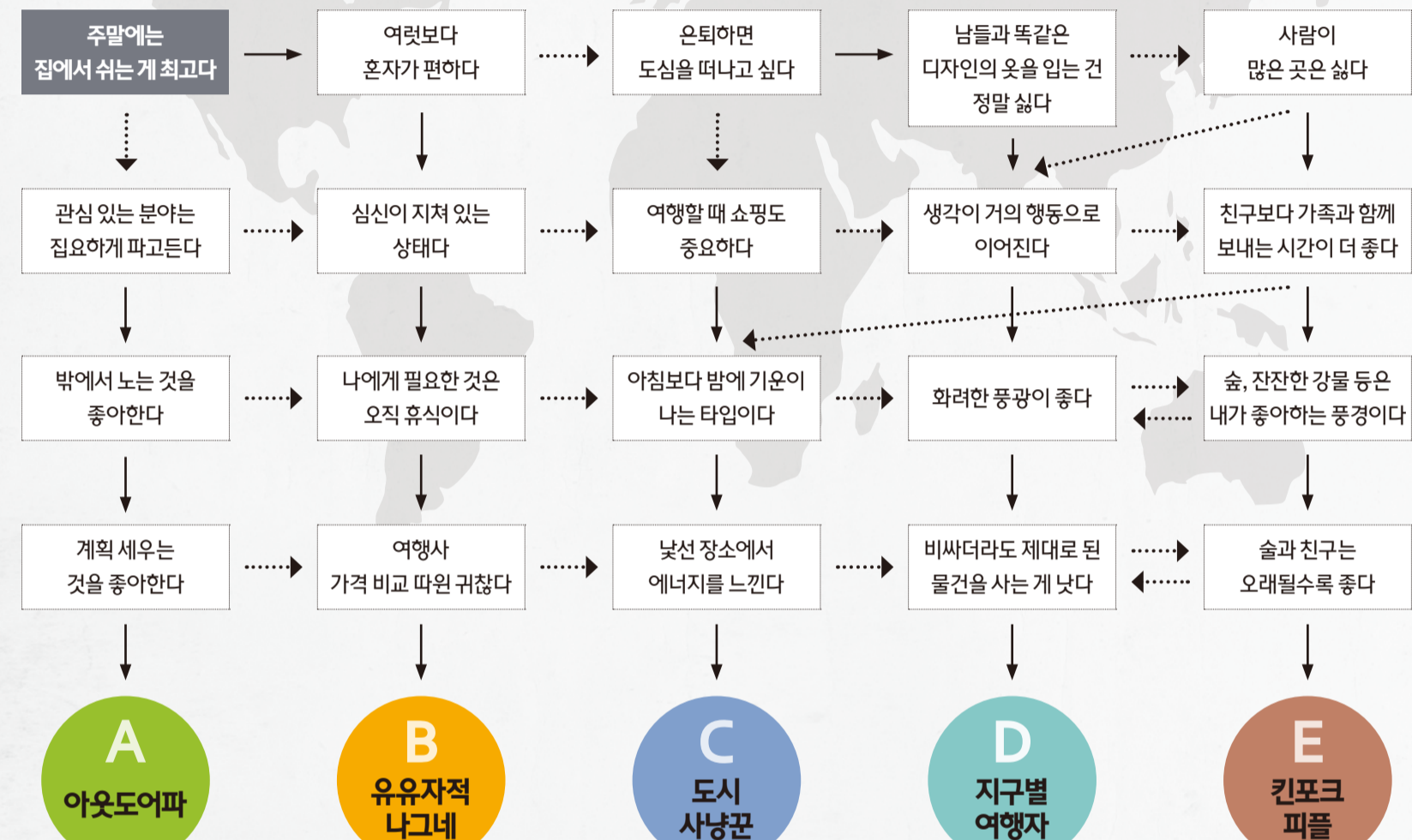


스타일별로 떠나는 여름휴가 프로젝트

Find your Travel Style!

"여행의 본질은 결코 속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이다. 여행은 거리를 이동하는 즐거움이고, 주변의 일상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다."(빈프리트 뢰쉬부르크, <여행의 역사> 4) 주 5일, 하루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여름휴가는 일 년 중 가장 큰 선물! '피피지기 백전백승'이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 스타일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워 보자.

누구나 자신만의 여행 스타일이 있다, 당신은 어떤 타입?



Type C

도시를 수놓는 화려한 불빛은 나의 것 도시 사냥꾼



모르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력과 이해력도 좋다. '도시 사냥꾼'이 사랑하는 것은 관광, 쇼핑, 문화 등이 한데 모인 종합선물세트 같은 여행.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짜릿함을 느낀다.

낭만도시, 프랑스 파리

파리는 쇼핑, 문화, 식도락 등 여행의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다. 백화점들이 모여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를 비롯해 몽테뉴, 샹젤리제, 생제르맹 거리 등은 파리 쇼핑의 대표적인 장소. 골목마다 숨어 있는 부티크를 발견하는 재미도 크다. 특히 1월과 7월은 세일을 노리는 쇼핑 마니아들에게 축제의 달. 대대적인 세일이 파리 전역에서 펼쳐진다. 예술의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박물관은 당연히 루브르다. 유럽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루브르 박물관은 다 보려면 약 60km를 걸어야 할 만큼 규모가 크다. 평소 보고 싶은 작품을 선정해 전파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뿐 아니라 오르세미술관에서 고흐, 고갱,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책에서 볼 수 있는 에펠탑, 개신교 문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추억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 **Tip.** 마트에서 산 저렴한 와인과 과일을 들고 발걸음이 닿는 공원이나 강변 산책을



뉴욕 시내 야경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뉴욕

세계를 주름잡는 패션과 문화가 시작되는 뉴욕은 일 년 내내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을 대표하는 문화활동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매일 밤 수십 개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뮤지컬이 상연되니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보는 것도 좋겠다. 뉴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만은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는 기념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돌아서기엔 너무 크고, 매력도 많다. 자전거를 빌려 구석구석 둘러보려면 하루를 몽땅 쏟아야 할 정도니 동선 체크를 잊지 말자. 또 뉴욕 여행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헬시마켓'이다. 옛날 과자공장 자리에 들어선 대형 식품매장으로 먹거리가 많아 식사하기 좋고 서점, 빈티지숍, 주방용품점 등이 빼곡해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광이 된다. 이 밖에 타임스퀘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제2 공원, 케네디 뉴욕이 자닌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Tip.**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가격이 만만치 않다. 러 시켓은 공연 당일까지 팔리지 않은 표를 공연 시작하기 2-3시간 전부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more Place 인제라도 떠날 수 있는 홍콩 / 야미 아름다운 상하이 / 태양의 나라, 스페인 바로셀로나 / 중세 골목으로의 여행, 오스트리아

Type D

남들과 똑같은 건 참을 수 없어 럭셔리 지구별 여행자

"지구별 여행자"는 주변인들에게 섬세하고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예술가 타입. 남들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의 신상 아이템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행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다.

신이 내린 신비의 섬, 모리셔스

<톱소어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을 모리셔스를 보고 "신은 천국보다 모리셔스를 먼저 창조했다"라고 극찬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이 섬은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오미 캠프, 브리트니 스카이스 등 세계 유명인들의 단골 휴식처로도 알려져 있어 바닷물이 투명한 코발트빛에 가깝다. 바다에서는 해양 스포츠를, 내륙에서는 지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 카약, 스노클링, 세일링, 글라이더 보트 등과 같은 무동력 해양 스포츠가 무뎠다. 모리셔스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장소 하나 바로 카젤라 네이처 앤 레저 파크(Casela Nature & Leisure Park)다. 이곳엔 길들여진 사자와 산책하는 '워킹 워드 라인(Walking with lions)'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소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인 만큼 용기를 내 도전해 보자. **Tip.** 인천에서 마드리드 또는 바로셀로나를 경유해 미노르카로 가는 국내선을 이용한다. www.spain.info



모리셔스

*more Place 반딧불이는 카리브해의 보석, 멕시코 칸쿤 / 남태평양의 진주, 타히티 / 인도양 서부의 섬나라 세이셸 / 아드리아해의 지상 낙원, 크로아티아 '홀브르' / 아일랜드 고성에서의 허름함 '아일랜드 골웨이'

지중해 휴양의 정수, 스페인 미노르카

열정의 나라 스페인의 숨겨진 파라다이스, 발레아레스 제도 동쪽에 위치한 702㎢ 규모

의 작고 평화로운 섬, 미노르카(Minorca)는



스페인 미노르카 섬

Type E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킨포크 피플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시골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 '킨포크(kinfolk)', 이 타입의 사람들은 '빠름'이 대신, 요즘, 느리고 아늑 있는 삶을 추구한다. 매사에 안경감 있고 있는 곳은 바로 미케 해변. 하얀 모래사장이 20km가량 길게 펼쳐 있는데 부드러운 모래와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유명하다. **Tip.**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고대 항구도시 호이안과 마주할 수 있다. www.travelvietnam.co.kr

편리함을 벗어난 소박함, 제주

꼭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엔 '제주도'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많은 이가 사랑하는 섬, 제주도는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숙소부터 식사숙고해 골라 보자. 여행의 8할은 숙소 정하기라 할 수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펜션이나 유명 호텔은 잠시 접어두자. 제주도 곳곳에는 전통농가주택을 그대로 리모델링해 만든 민박이 많다. 우리 가족끼리만 지낼 수 있는 멋진 독채 주택을 골라 보자. 최근 에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추천받은-추사랑 부부가 찾아 화제가 됐던 이곳은 희귀종인 8.5m짜리 고래상어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쥐기오리를 볼 수 있다. **Tip.** 스쿠터나 자전거를 렌트해 해안도로를 일주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보석 같은 휴양지, 베트남 다낭

푸켓, 세부, 보라카이 등 잘 알려진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는 이미 다녔거나 식상하

다고 느낀다면 베트남 '다낭'을 추천한다. 다낭은 일 년 내내 온화한 기후에 열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베트남 최대 휴양지다.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압도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미케 해변. 하얀 모래사장이 20km가량 길게 펼쳐 있는데 부드러운 모래와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유명하다. **Tip.**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고대 항구도시 호이안과 마주할 수 있다. www.travelvietnam.co.kr

동양의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가족 여행을 떠나기 좋은 최적의 장소. 가족들과 가볍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뿐 아니라 일본 정통 숙박시설인 료칸 등 취향에 따라 숙박시설을 고를 수 있다. 아이와 여행을 계획했다면 오키나와 엑스포 해양공원이 재미있을 '주리우미 수족관'을 추천한다. 최근 에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추천받은-추사랑 부부가 찾아 화제가 됐던 이곳은 희귀종인 8.5m짜리 고래상어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쥐기오리를 볼 수 있다. **Tip.** 오키나와는 렌트카를 이용해 자유로운 여행을 만끽하기에 좋다. krvisitokinawa.jp

*more Place 섬나라 대만의 항구도시 가오슝 /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코타키나발루



제주 성산일출봉

베트남 다낭

오키나와 주리우미 수족관

TOGETHER

〈사보신문〉이 우리 회사 사우들에게 모교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후배들에게 현대건설을 소개하는 소통 이벤트 '선배가 쓴다'를 진행 중이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고려대 미식축구부 선배들이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정상섭(3학년)·황상권(2학년) 학생, 이학선 대리, 이상혁(4학년)·한장희(4학년) 학생(사진 왼쪽부터), 아쉽게도 박영근 과장은 사진 촬영에 함께하지 못했다.

선배가 쓴다 **고려대 미식축구부 편**

미식축구의 협동·희생·개척 마인드 **‘현대건설 정신’과 닮았나요?**

땀 냄새 풀풀 나는 남자들의 스포츠, 미식 축구! 이번 호 〈사보신문〉은 고려대 미식축구부 출신인 박영근 과장(해외마케팅지원실), 이학선 대리(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루즈 정유공장 주공정 시설공사 서울사무소)와 함께 미식축구 동아리 후배들을 찾았다.

올해로 창단 53주년을 맞은 고려대 미식 축구부는 까마득한 선배에게도 격없이 ‘형’이라 부르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일까, 사진 촬영을 위해 잔디밭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땀을 흘리는 그들에게서 끈끈한 동료애가 느껴졌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그때 그 시절’

박영근 과장 동생들 봐서 무척 반갑고 기뻐요. 부원들 보러 자주 오고 싶는데, 그동안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빴어요. 사실 집에서 학교가 멀지 않아 가족과 자주 모교를 찾는 편입니다.

이학선 대리 오늘 취재 때문에 오랜만에 학교 운동장에 와서 동생들과 공을 주고 받으니까 재학 시절 힘들게 운동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참 좋은 추억이었어요.

박영근 과장 오늘 모인 후배들은 모두 공대생이고, 현대건설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상혁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싶어 하게 인턴십에 지원했는데 인-적성에서 그만 미끄러졌어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형들에게 조언을 듣고자 냉큼 달려왔습니다(웃음).

박영근 과장 ‘선배가 쓴다’ 모집공고를 보자마자 동생들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대학 4년, 학사장교 3년 생활을 포함해 20대의 대부분을 미식축구부 활동으로 보냈어요. OB가 되면서 학생 때 받았던 형들의 사랑을 동생들에게도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장 생활이 바쁘고 육아에 매이면서 쉽사리 지키지 못했죠. 동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네요(웃음).

이학선 대리 ‘선배가 쓴다’에 당첨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소식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덕분에 오늘은 그동안 동생들에게 못 해줬던 것들을 실컷 해주려고 합니다. 동생들은 어떻게 미식축구부에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한장희 복학해서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과 후배가 미식축구부에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부실에 갔는데, 그날 헤드기어에 제 이름을 쓰고 사물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웃음). 최전방에서 상대팀의 수비를 저지해 공격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라인맨’인데, 아무래도 저처럼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상대를 밀 때 유리하거든요.

박영근 과장 저는 대학 와서 미식축구를 처음 알게 됐고, 남자들의 거친 스포츠라는 생각에 가입했어요. 제 전공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 말은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은 경영학이었지만, 경영대 건물보다는 미식 축구부실이 있는 체육생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평일 주 3회 팀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시합에 참여했어요. 방학에는 2주간 합숙훈련을 했고요. 3학년 때는 주장을 하며 팀을 이끌었고, 선수로는 오픈스 ‘폴백(후위 공격수)’과 디펜스 ‘라인 배커(상대팀에 테클을 걸며 방어하는 수비수)’라고 하는 하드 포지션을 맡았죠. 당시는 선수 인원이 10~15명 남짓이어서 선수 한 명이 공수 역할을 모두 해야 했어요. 경기가 끝나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학선 대리 대학생 때 ‘기계공학은 내 부전공이고, 미식축구가 내 전공이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포지션은 패

스를 하면 공을 받아내는 ‘리시버’였는데, 다른 선수에 비해 체격이 크지 않은 대신 달리기 빠르고 공을 잘 받았죠. 전통적으로 고대 미식축구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패스가 적지만, 제가 리시버를 하면 서부터 패스가 많이 늘었어요.

박영근 과장 학선이가 운동을 잘하고 빨랐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체격 조건이 안 되고 운동 못하는 사람이 리시버를 했어요(웃음).

이학선 대리 항변을 하자면, 저는 국가대표 리시버로서 상비군까지 할 뻔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대회에서는 제 손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답니다(웃음).

해외 현장 근무? 이젠 당연한 일!

이상혁 형들의 재학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와 한장희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식축구부 활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영근 과장 고려대 미식축구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나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분명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식 축구에는 협동·개척·희생 정신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중요시하죠. 그런 점에서 스포츠 씩씩이만 집중하는 학생들보다 취업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학선 대리 협력하거나 소통해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미식축구를 하면서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배웠는데, 회사에서도 동일한 것을 느끼

고 있죠. 그래서 더욱 열정을 다하게 돼요.

정상섭 형들이 생각하는 해외 현장 근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박영근 과장 나중에 회사 다녀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경쟁자는 세계 각국입니다. 우리 회사도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합쳐 글로벌 마케팅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사업 영역을 국내외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곧 일하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죠.

이학선 대리 학생 시절 플랜트산업협회를 통해 현대건설 사우디 카란 가스처리 시설(K-one) 현장에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입사 후 바로 해외 현장 근무에 지원했어요. 그렇게 사우디 마덴 알무미나 제련소 건설 공사 현장을 2년 정도 다녀왔죠. 플랜트 현장의 경우 사막에 현장 하나, 기설 숙소 하나가 전부예요. 장점이라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개인 역량이 빠르게 향상된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일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4개월 열심히 일하면 2주간 휴가를 주니까(웃음)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해외로 출장도 자주 가고, 업체와 영어로 메일을 주고받거나 통화할 일도 많죠. ‘공대생이 입사하면 엔지니어만 한다’ 이걸 옛말이에요. 일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여러분과 하루빨리 현대건설에서 일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황상권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재직 중인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박영근 과장 당시 미식축구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다치거나 아파도 술 한잔 마시고 잊거나 참았죠. 그런데 그게 남자다운 거고, 고대 미식축구부 스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그때 함부로 몸을 혹사시켰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은 아프거나 다치면 꼭 적절한 치료를 받고 꼭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고 무사히 졸업해 현대건설 선배로 또다시 만납시다! 고려대 미식 축구부 파이팅!



화기에애했던 뒷풀이. 왼쪽 두번째 박영근 과장.

COLUMN

생각의 좌표 **영화 자막 취급 주의**

자막은 고향을 떠난 영화가 나머지 세계 관객과 만나는 최전방의 접점이다. 유리그릇처럼 다루지 않으면 창작자와 관객이 다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화를 관람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더빙과 자막에 의지한다. 한국에서는 자막이 주류를 차지한다. 애니메이션과 가족영화가 예외인데, 이 경우도 대개 성인 관객을 위한 자막 버전을 따로 상영한다. 나라마다 더빙과 자막의 지분은 제각각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주로 더빙을 선호하고, 예술영화관이나 비인기 시간대에만 자막판을 쓴다. 이들 나라는 인구가 많고 공용어가 모국어인 국민 비율이 높으며 영화산업의 역사가 깊어 관객들이 자국어로 영화를 보는 데 익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더빙 제작비를 회수할 시장이 작은 동유럽, 북유럽에선 자막판이 우세하다.

다. 그래서 지상과 TV는 오랜 기간 더빙 방영을 선호해 왔다. 근래 3D 영화가 늘어나면서 자막은 온전한 입체감을 훼손하는 애플단지가 되기도 한다. 영화 <그라비티>를 사랑한 관객이라면 스크린과 객석의 경계를 일깨우는 자막의 간섭 없이 이 영화가 재현한 붕제선 없는 우주공간을 온전히 유영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을 터다. 반대로 자막을 선호하는 관객의 근거는 간단명료하다. 감독의 의도대로, 배우가 연기한 대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막판이 당연히 '진본'이어서다. 설령 성우가 오리 지널 배우보다 연기력이 우수하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공되고 변형된 판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있다. 스토리에 집중하려는 관객이 자막에 주의력을 쏟으면, 창작자가 영화에 담은 시청각 정보를 적잖이 놓치게 되므로 이 역시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관객으로서 내가 자막을 절대 선호하는 큰 이유는 사운드다. 더빙 트랙이 없으면 영화의 오디오가 납작해지면서 감독과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면밀히 쌓아올린 소리의 공간감(soundstage)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사이키조명과 물세레까지 더해 영화를 보는 4DX 상영관이 성업 중인 세계에서 이 정도 불만은 조만간 목살당할 지도 모르겠다.

좋은 번역이 필수

어쨌거나 한반도 바깥에 같은 언어를 쓰는 영화 제작국이 없고 자국 영화 점유율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한국 관객들은 영화 자막이 본의 아니게 익숙하다. 나 역시 '자막 읽기'에 최적화된 자신에 가끔 놀란다. "거기 자막이 있기에 무조건 읽는다"라고나 할까. 심지어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볼 때도 무의식중에 영어 자막에 눈길이 사로잡히고 만다. 때로는 개최국 관객을 위한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자막에도 쓸데없이 한눈을 팔다가 머리를 쥐어박는다. 이처럼 왕성한 한국 관객의 후천성 자막 소화력(?)은 자막을 버거워하는 영미권 관객에 비해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영화를 향유하기에 유리하다(물론 고른 수입과 배급이 전제다). 하지만 자막판의 장점을 누리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좋은 번역이다. 솔직히 제3세계 영화를 보고 석연치 않을 때마다 내가 영화 미학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번역의 불투명함 때문일까 고민에 빠진다. 중역(重譯)에 대한 불신이다. 최근에는 번역보다 변안을 꾀한 자막이 소비자의 불평을 샀다. 첩보 코미디 영화 <스파이>의 경우, XL사이드 중년 여성인 주인공(멜리사 매카시)의 외모를 비하한 표현을 더하거나 문화적 레퍼런스를 임의로 교체한 사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스파

이>를 연출한 폴 페이그 감독은 <내 여자 친구의 결혼식> <히트> 등 성불평등을 꼬집는 장르영화로 일가를 이뤘고, 여성판 <고스트 버스터즈>를 준비 중임을 고려하면 이 '의역'과 '오역'은 작품의 의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연전에는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 자막이 국내 유행어를 남용해 반발을 부른 예도 있었다. 수입사가 상업적 조바심을 앞세운 경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경박한 의역과 유행어 남용은 3~4년만 흘러도 영화가 낡고 값싸 보인다는 폐해로 이어진다. 자막은 고향을 떠난 영화가 나머지 세계 관객과 만나는 최전방의 접점이다. 유리그릇처럼 다루지 않으면 창작자와 관객이 다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빙 vs 자막

더빙과 자막에는 상이한 미덕과 단점이 있다. 더빙은 자막을 따라가기 벅찬 어린이, 노인 관객이 영화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줄로 길이가 제한되는 자막보다 더 많은 내용을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

김혜리 <씨네21> 기자



비즈니스 매너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요즘, 작은 에티켓 실수 하나가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관습부터 국제사회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까지 현대건설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연재한다.

투우와 플라멩코로 유명한 '정열의 나라' <스페인>편

스페인 출장이 처음인 현 대리는 너무 배가 고프다. 비즈니스 점심 미팅 시간이 오후 2시라니, 스페인에서 보통 이 시간에는 낮잠을 잔다던데... 아냐? 시간에 딱 맞춰 나간 자신보다 미리 나와 있는 현지 파트너를 보자 외의다. 게다가 여성 파트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현 대리가 약속을 건네자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처음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 내 반팔 셔츠 차림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내가 한 호칭이 잘못된 건가? 분명, 선배가 알려주기를 스페인에서는 상대방의 성 앞에 '세뇨르(Senor)'를 붙이는 거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선물만 한 것이 없다 싶어 미리 준비한 값비싼 조각상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양하며 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무표정으로 식사만 한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라도 채워야겠다 싶어 허겁지겁 배를 채운 현 대리. 상대는 아직도 식사가 안 끝났다. 자신도 모르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는 현 대리를 무심하게 쳐다보는 파트너를 보자 불안하다. 계약 건에

대해 묻자 '마나나(Manana)'라고만 대답한다. 사전을 찾아보니 '내일'이란 뜻이다. 그럼 내일 계약한다는 건가? 스페인어로 마나나(Manana)는 '내일'이라는 뜻이 맞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낭패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는 기약 없는 '언젠가'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Sin prisa pero sin pausa (급히 가지 말되, 멈추지도 말라)'는 스페인 명언만 보더라도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어떤 젊은이들은 갓 튀겨낸 스페인의 전통과자 추로스(Churros)를 꼽는다. 스페인은 추로스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인 나라지만 추로스가 튀겨질 때까지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많은 인내가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5배 정도 크기에 약 400만 명이 거주하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 스

페인 국민은 자부심이 강하고 매너를 중요시하며 낙천적이고 여유를 즐긴다. 그런 스페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조바심을 내기보다 그들의 문화와 매너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수다.

글=박영실 서비스 파워 아카데미 대표



사우가 전하는 **생생** 현지 정보통!

'정열의 나라' 스페인은 불거리가 즐비하고 역사·문화가 살아 있어 항상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으로 북적임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열정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데는 축제도 한몫하는데요. 지역마다 거의 1년 내내 축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위험천만한 '황소놀이'로 유명한 '산 페르민 축제'가 열리고, 8월에는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토마토 축제'가 열립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 웅장함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빼어난 건축물과 에메랄드 빛 지중해 해수욕장이 있는 스페인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잠, 낭만적이고 친절한 스페인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트림을 하는 것은 큰 결례니, 참아주세요! ^^



강혜리 사원 연구개발본부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현 대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스페인**의 비즈니스 관습과 매너

- 1 스페인의 점심시간은 보통 오후 2~4시로 우리나라보다 늦다. 사정기를 느낀다면 미팅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는 것도 센스다.
- 2 비즈니스에서는 오후 1~4시에 낮잠 자는 시간인 '시에스타(Siesta)'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다. 또한 은행이나 관공서는 오후 2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 3 스페인에서는 약속시간에 늦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비즈니스에서는

약속시간을 엄수해야 함을 명심하자. 다만, 약속시간이나 업무 회신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보다 꽤 길 수 있으니 조바심을 내지 말자.

- 4 비즈니스에서는 약속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상대가 여성이면 약속은 여성이 먼저 청하는 것이 매너다. 친분이 있는 스페인인이라면 도스 베소스(dos besos) 인사

일반적이지 않으나, 'dos besos'에서 dos는 '둘'의 의미고, beso는 '입맞춤'을 의미한다. 즉, 왼쪽 오른쪽 볼을 번갈아 대면서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인사다. 하지만 실제로 입맞춤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소리를 내며, 빈가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5 현 대리가 말한 'Senor (세뇨르)'는 결혼한 남성이란 의미로 영어의 'Sir'이다.

중남미에서는 결혼한 여성은 'Senora(세뇨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Senorita(세뇨리타)'로 칭하는데 스페인에서는 혼용돼 사용되기도 한다.

- 6 스페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싼 선물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정성이 담긴 카드, 부담스럽지 않은 한국 기념품 또는 20유로 미만의 꽃이나 와인 등 가벼운 선물은 괜찮다.

PEOPLE

JTBC 예능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싱글족 취향의 자취 요리를 선보이는 김풍의 본업은 웹툰 <찌질의 역사>를 그리는 작가다. 그런 그에게 요리 그리고 웹툰에 대해 물었다. 글=박지현 <월간중앙> 기자 / 사진=오상민 <월간중앙> 기자

한동안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게 먹는 '먹방(먹는 방송)'이 대세를 이루더니 요즘은 '쿡방(요리하는 방송)'이 떴다. 요리 실력과 입담 실력을 겸비한 '셰프테이너[요리사(Chef)와 예능인(Entertainer)의 합성어]'들이 방송계에서 각광을 받는다.

JTBC 예능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가 그런 트렌드를 이끈다. 게스트로 출연한 연예인들의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이용해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제한시간은 15분. 긴장감은 TV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ENG카메라 18대가 생동감을 입힌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남성 유명 셰프들의 요리 과정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미지'의 부엌에 대한 신비감을 벗겨 간다. 냉장고 속에서 '남은 재료'에 불과하던 재료라도 그들의 손을 거치면 예술작품 같은 요리로 변신해 나온다. 음식 맛을 보는 게스트의 황홀한 표정을 지켜보면서 시청자들도 덩달아 쾌감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요리하는 만화가' 김풍

“만화·요리는 닮았어요. 창작의 고통 즐거야죠”

[저 진짜 셰프 아니거든요?!]

현란한 손끝을 자랑하는 셰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다. 만화가 김풍(37).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전문 셰프가 아니라 13년째 웹툰 작가로 활약하는 짝퉁(?) 셰프라서다. 요즘은 광고시장까지 섭렵했다. 2002년 <폐인 가족>으로 인터넷 만화인 웹툰 시장을 개척하며 스타작가 반열에 올랐던 그가 펜 대신 칼을 잡자 시청자들은 자못 흥미진진해 한다. 자칭 '자취요리 연구가'라고 말하는 김풍은 쉽고 빠르고 간편한 요리로 도시 싱글족들의 취향을 제대로 살려 시청자들의 가상 미각을 자극했다. 일부 시청자는 너도나도 그 요리들을 모방해 '풍요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리는 경쟁을 벌인다.

Q <냉장고를 부탁해>의 셰프로 출연하는데 인기를 실감하나요?

아휴, 저 진짜 셰프 아니거든요. '요리하는 만화가'가 아니라 '만화 그리는 요리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자취요리 연구가'로 직업은 만화가예요.

Q 전문 셰프가 아닌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요리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가 가능한 거죠. 사람들의 입맛은 보수

적이거든요. 해외에서 음식이 들어와도 주식 이 안 되는 것처럼, 익숙함을 찾는 거죠. 우리가 먹던 요리에서 살짝 변형하는 것이 저만의 '짬수'예요(웃음).

Q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입맛도 까다로운 것 같은데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요?

전 입맛이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짠 음식이나 그냥 배 채우는 음식도 좋아해요. 편의점에서 파는 H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데요(웃음).

[배도 많이 아파봐야 맛을 알죠~]

Q 토마토 냉면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음식이었어요.

토마토 냉면은 평소 자주 해먹는 음식이에요. 토마토 1개, 고추장, 마늘, 양파, 소금, 설탕, 식초를 믹서에 갈아서 삶은 면에 비비면 완성되는 쉬운 요리거든요. 더욱이 토마토는 싸고 몸에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남자 전립선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하하.

Q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서는 요리 대결 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죠? 시간이 너무 짧지는 않던가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 셰프들도 어려워할 정도인데요. 제가 허둥대는 게 콘셉트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만큼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김풍은 실제로 '허당' 셰프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시간이 촉박해 손을 부들부들 떠는가 하면, 허둥지둥하며 진땀을 흘려 주위로부터 웃음을 자아낸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결과물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전 셰프'라는 별칭도 얻었다. 남은 고기와 빵으로 만든 '와풍주니어버거'는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남은 미트볼과 스펀지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팽이버섯으로 식감을 살린 후 치즈와 부드러운 카스텔라 빵을 얹어 만든 햄버거다. 카스텔라의 부드럽고 달콤함과 패티의 짭조름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야채의 식감까지 완벽했다는 평을 받았다.

Q 요리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 궁금해요.

쉽고 빨라야 한다? 저는 생활형이라 '냉장고를 비워야겠다'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크죠. 장을 보러 갔을 때는 제철음식이 싸고 가장 맛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Q 요리를 잘하려고 평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라도 하나요?

저는 수없이 시도하고 수많은 실패도 맞보았죠. 너무 맛이 없어 뱉어도 봐야 하고, (베탈이 나서) 아파도 봐야 해요(웃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장도 내성이 생기는지 이젠 배 아픈 일도 없어요. 제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이지요.

시선이 그의 손으로 갔다. 아무래도 그의 손이 가장 빛날 때는 만화 작업을 할 때가 아닐까. 현재 연재 중인 웹툰 <찌질의 역사>는 2000년대 초반 대학을 배경으로 스무 살을 막 넘긴 남자들이 겪는 과거담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영감을 얻은 이 웹툰은 대한민국 30, 4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본능에 초점을 맞췄다.

Q 웹툰 <찌질의 역사>를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남자들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원제로 생각했던 것이 <보편적인 수컷들의 역사>였으니까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철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자신의 못난 모습을 감추는 노련함이 더 생길 뿐이지요. 자기합리화와 궤변만 늘어(웃음). 남자들의 본능과도 같은 허세를 제대로 '까보자(공개해 보자)'는 마

음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19금이었으면 더 적나라했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랄까요(웃음)?

Q 영화 <건축학개론>을 보고 영감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때 느꼈던 것이 첫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반발심이었을까요? 미화됐던 자신의 과거는 사실 대부분 찌질하거든요(웃음). 그리고 첫사랑은 처음 사랑한 여자가 아니에요. 가장 뜨겁게 사랑한 때가 첫사랑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 청춘에서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자신을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을 살펴보면 어떤 불운을 같은 것이 있다. 중간에 꼭 부침을 겪는다는 것. 홍익대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한 후 첫 번째 작품인 <폐인 가족>이 흥행한 덕분에 순식간에 스타 작가로 떠올랐지만, 10년 동안 다른 길을 찾아 헤맸다. 연극 무대에도 서보고 영화 조연으로도 출연했다. 그러다 제대로 재미가 들린

것이 있었는데 바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김풍은 요리 레시피를 올리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요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김풍 셰프'를 섭외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찌질의 역사>는 영화화될 예정이다. 그는 만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리는 저에게 취미이고 즐거운 것이지만 직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를 젓듯이 지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즐기는 중입니다.”

요리와 만화의 공통점을 물었다. “창작, 머릿속의 생각이 조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굼직한 손을 다시 바라보자니 김풍수의 시 '꽃'이 떠오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문구는 머릿속에서 변형된다. '김풍이 만들기 전에는 자투리 재료에 지나지 않았다. 김풍이 꺼내 만들어내니 모두에게 만족이 되었다.' 만족을 주는 것은 음식과 만화 둘 다 해당하는 말이다.



방송은 저에게 '담'인 것 같아요. 요리는 취미고요. 예능도, 요리도 즐기는 중입니다.



CULTURE

부쩍 빨리 찾아온 무더위 탓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여름이 돌아왔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계절이지만, 여름이 내심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빙수' 때문. 서울 시내 빙수 맛집 6곳을 소개한다. 글·사진=블루리본 서베이

서울 **팔**빙수 맛집

도심 속 피서지가 따로 없네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겨울에도 빙수를 만나볼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빙수는 여름철에 즐기는 것이 제맛이다. 부드럽게 간 얼음과 팔이 조화를 이루는 빙수를 한 수저 입에 넣으면 다른 피서지가 부럽지 않을 정도. 올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서울의 빙수 맛집들을 소개한다. 빙수 맛 하나만으로 몇 년째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곳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전문점까지 다양하게 뽑아보았다. 얼음 위에 팔과 떡을 올린 기본적인 팔빙수와 독특한 재료를 넣어 만든 이색 빙수까지 맛볼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방문해 보자.



다양한 빙수의 향연, 빙빙빙



수북하게 쌓아 올린 빙수를 맛볼 수 있는 곳. 부드러운 우유 얼음 위에 팔을 올린 '팔빙수'가 대표 메뉴며 팔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유 얼음만 나오는 '밀크 빙수'를 주문하는 것도 좋겠다. 특정 계절에만 선보이는 계절 빙수는 얼음 위에 과일 시럽을 얹어 내는 스타일로, 여름에는 새콤한 '크랜베리 빙수'를 맛볼 수 있다.

메뉴 밀크 빙수(1인 5500원, 2인 8800원), 팔빙수(1인 7700원, 2인 1만1000원), 녹차 빙수(6600원), 레몬 빙수, 요거트 빙수, 계절 빙수(각 7700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2-1 전화번호 070-7739-7191
영업시간 11:00-22:00 휴무 명절 휴무 주차 불가

한국 전통의 맛을 재연한 팔빙수, 담장 옆에 국화꽃



빙수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대표 메뉴는 고소한 밤과 대추를 듬뿍 올린 '밤 대추 팔빙수'. 부드러운 우유 얼음 위에 직접 삶은 팥, 밤, 슬라이스한 대추 등이 넉넉하게 올라간다. 팥은 무료로 리필할 수 있으며 '수정과 빙수'를 제외한 모든 빙수는 1인용, 2인용 중 선택할 수 있다. 빙수와 함께 예쁜 색감의 '인절미 구이' '가래떡 구이' 등을 곁들이면 좋다. 본점은 서래마을에 있으며 센트럴시티와 한남동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메뉴 밤 대추 팔빙수(1인 8000원, 2인 1만4000원), 단호박 팔빙수, 딸기 팔빙수, 커피 빙수, 녹차 팔빙수(각 1인 9000원, 2인 1만6000원), 수정과 빙수(1인 9000원), 통팥죽, 단팥죽, 인절미구이(각 8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2-3 오프라빌딩 1층 전화번호 02-517-1157
영업시간 10:00-23:00 휴무 명절 휴무 주차 가능

우유 빙수의 원조, 밀탑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전설의 빙수 전문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우유 빙수의 원조격인 곳으로, 우유 얼음과 달달한 팥, 떡이 올라간 '밀크 빙수'가 가장 인기가 많다. 여러 가지 과일을 조금씩 얹어 내는 '과일 빙수'와 '석류 빙수' 등의 상큼한 메뉴도 추천할 만하다. 팥과 떡은 무제한 리필할 수 있는 것이 장점. 현대백화점 신촌점·목동점·미아점 등에도 입점해 있다.

메뉴 밀크 빙수, 딸기 빙수, 과일 빙수, 커피 빙수, 녹차 빙수, 석류 빙수(각 8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29 현대백화점 5층
전화번호 02-547-6800 영업시간 10:30-21:30
휴무 백화점 휴무일 주차 가능

부드러운 질감의 우유 빙수, 팔꽃나무집



강남 신세계백화점 푸드코트 내에 자리한 빙수 전문점이다. 대표 메뉴는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팔과 삼색 떡이 올라가는 '밀크 팔빙수'. 차가운 늦그릇에 담아내 먹을 때까지 얼음이 잘 녹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고운 흑임자 가루를 뿌린 '흑임자 빙수'도 추천할 만하며, 고소한 맛과 팔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팔이 따로 올라가지 않고 상큼한 딸기로 맛을 낸 '딸기 빙수'와 여러 가지 과일을 토핑으로 얹어내는 '과일 빙수'도 별미로 즐기기에 좋다.

메뉴 밀크 팔빙수, 딸기 빙수, 녹차 빙수, 커피 빙수, 단팥죽(각 7000원), 흑임자 빙수, 과일 빙수(각 75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강남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전화번호 02-3479-1664 영업시간 10:30-20:00
휴무 백화점 휴무일 주차 가능

가마솥에 끓인 옛날 팔빙수, 경성팔집 옥루몽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전국구 브랜드가 된 '경성팔집 옥루몽'의 본점이다. 당분이 높은 국내산 팥만을 사용하며 전통 가마솥에 4시간 이상 끓이는 것이 맛의 비결이다. 대표 메뉴는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팔과 쫄깃한 떡을 얹어 내는 '가마솥 전통 팔빙수'. 멋스러운 방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내어 알알이 살아 있는 팔과 얼음의 조화가 훌륭하다. 이외에 고소한 흑임자를 더한 '흑임자 빙수'와 씹살한 '녹차 빙수'도 인기 메뉴다.

메뉴 가마솥 전통 팔빙수(8000원), 흑임자 빙수, 녹차 빙수(각 9000원), 전통 팥죽, 단팥죽, 호박죽(각 7500원), 구운 찰떡(2000원), 팔 추가(1500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2-18 전화번호 02-325-4040
영업시간 11:00-23:30 휴무 연중 무휴 주차 불가

소박한 옛날식 팔빙수, 동빙고



2010년 오픈한 빙수 전문점으로, 이촌동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다. 얼음 위에 연유와 우유, 푹 삶은 팥, 떡을 올린 단출한 모양새지만 기본에 충실한 빙수를 맛볼 수 있다. 팔이 뭉개지지 않고 알알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 문근하게 끓인 '단팥죽'도 인기 메뉴며, 밀크티를 부어 만든 '로열밀크티 빙수'와 상큼한 '유자 빙수'도 별미로 즐기기에 좋다.

메뉴 팔빙수, 마숫가루 팔빙수, 단팥죽(각 6500원), 녹차 빙수, 로열밀크티 빙수, 유자 빙수(각 7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1-162 전화번호 02-794-7171
영업시간 10:30-23:00 휴무 연중 무휴 주차 불가



ART

허영만 화백이 국내 만화가 최초로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개인전 <허영만展-창작의 비밀>을 열었다. 거장이라 불러 마땅한 그의 지난 40여 년을 돌아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

40년 만화 인생, 창작 비밀이 베일을 벗다

만화가 허영만의 첫 전시가 오는 7월 1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에 국내 만화가 개인전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허영만 화백은 지난 40년간 그린 15만 장의 원화와 5000장이 넘는 드로잉 중 500여 점을 선별해 전시를 꾸몄다.

이번 전시는 허 화백의 첫 히트작 <각시탈>을 비롯해 시청률 43%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원작 <날아라 슈퍼보드>, 90년대 청춘의 팬덤이자 대중문화의 폭발을 보여준 <비트>, 8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타짜>, 4년간의 구상과 2년 여의 취재로 한국 만화에 새 역사를 쓴 <식객>, 80년대 대학생의 필독서 <오! 한강> 등이 메인 테마로 구성됐다. 또 그가 창작을 위해 끊임없이 기록한 취재노트, 소소한 일상을 만화로 그린 만화일기 등도 전시된다.

특히 1974년에 발행된 <각시탈>의 초판본 원화 149장이 40년 만에 최초 공개되는데, 붓과 펜으로 수정된 터치들, 글귀를 하나하나 따서 붙인 말풍선, 컷마다 빨강 혹은 흰 펜으로 기재한 수정사항 등은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만화 컷을 200호 대형 캔버스에 옮겨놓은 작품 10여 점과 실제 원화 30여 점은 물론 1988년부터 허영만 화실에서 2년을 함께한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가 그린 허영만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단순히 허영만의 히트작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의 만화 도구, 화실 벽에 걸린 족자, 책상에 붙은 메모까지 곳곳에 배치한 한국의 대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인물을 부각하는 전시는 한국 만화 대가의 창작 비밀과 그의 삶까지 고스란히 전달한다.

한편 전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허영만 아카이브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오마주 작품까지 선보인다. 아울러 1만여 권의 만화책이 비치된 만화방은 관객들에게 추억과 감성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YOUNGMAN HUR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5.4.29~7.19
070-7533-8998

- 1 전시장 내부
- 2 제7구단(1985)
- 3 타짜(1999)
- 4 무당거미(1981)
- 5 식객(2002)
- 6 날아라슈퍼보드(1990)
- 7 망치(1990)
- 8 비트(1994)

